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2-76
----------	-------

발의년월일: 2022. 9. 1.

발의자: 최은하 외 18인

1. 주문

-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마포구는 2005년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 없이 마포구에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하는 것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인바,

나.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의회

붙임: 결의안 1부. 끝.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포구는 이미 2005년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급기야 이제 신규 자원회수시설까지 떠안아야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만약 상암동에 1일 처리 용량 1,000톤 규모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기존 소각장 폐지 시점인 2035년까지 2개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서 유해물질 배출과 출입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란으로 마포구 주민들의 심각한 생활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마포구가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입지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서울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마포구민들은 광역자원회수시설 뿐만 아니라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 난지도 쓰레기 매립, 서울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다.

심지어 모든 지역과 주민이 기피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받아들인 마포구민이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수십 년 세월의 고통과 서러움을 감내해 온 것은 오로지 서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그 간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37만 마포구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설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는 근본적이고 형평성 있는 폐기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현재 마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상하라

2022. 9.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